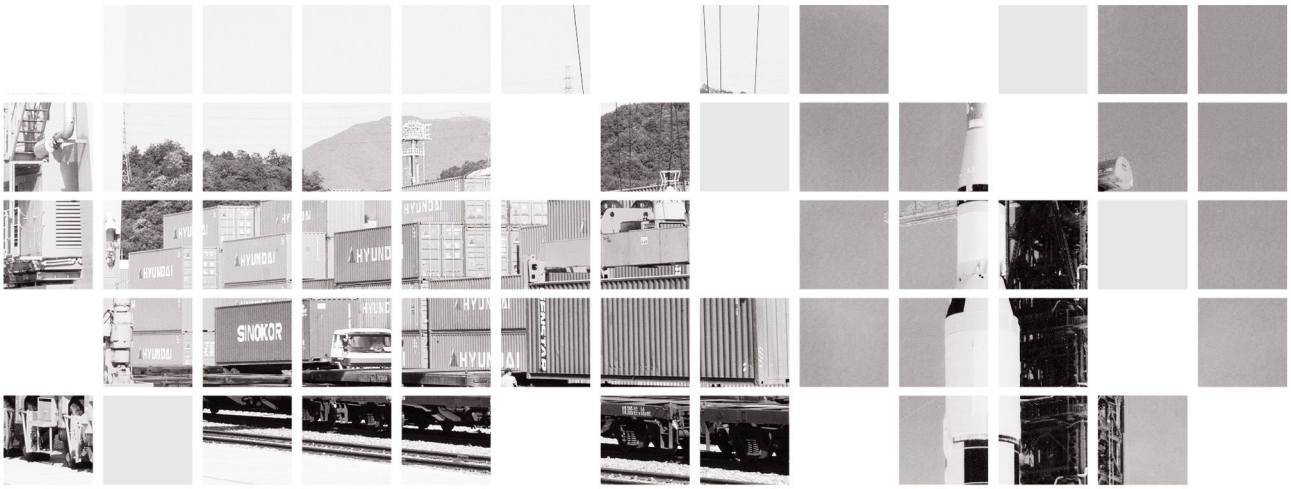
11-44 (통권 471호)
2011.12.26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경제주평

HRI Weekly Economic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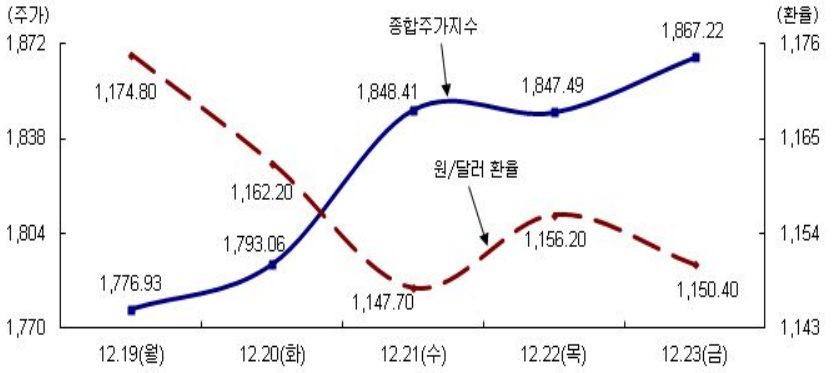


[실버 취업자의 특징 및 시사점]

現代經濟硏究院
HYUNDAI RESEARCH INSTITUTE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2.19~12.23)



주가	환율	금리	유가
27.26	-8.20	0.04	3.50
1,867.22 (종합주가지수)	1,150.40 (원/달러)	3.37 (국고채 3년물)	105.48달러 (두바이油)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실버 취업자의 특징 및 시사점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1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작 성 : 김 민 정 연구위원 (2072-6212, kimmj@hri.co.kr)

Executive Summary

□ 실버 취업자의 특징 및 시사점

■ 실버 취업자의 현황

1955~1963년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최근 본격화하면서 노후 대책이 사회 현안으로 대두 되고 있고, 고령 취업자도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 60~79세의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기준 전체 취업자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12.1%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2007-2011년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 중 고령층 부가조사와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60~79세의 실버 취업자의 일자리를 질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 실버 취업자의 특징 및 일자리 분석

첫째, 실버 취업자의 연금 수령자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이 2011년 기준 30만원으로 매우 낮고 실버 취업자 중 취약계층이 20%를 차지하고 있다. 연금 30만원은 1인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고령 취업자 중에서 10만원 이하 연금을 받거나 전혀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실버 취약계층 비중이 실버 취업자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70-79세 실버 취업자의 임금 수준은 2011 년 57 만원으로 60-69 세 실버 취업자130 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실버 취업자 중에서도 70대 취업자의 임금이 더욱 열악**하다. 금융위기 이후, 실버 취업자의 월 평균 실질 임금 증가율은 60대의 경우 플러스로 전환되었으나 70대는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다. **셋째, 실버 취업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규직의 2배 이상이고 임금이 낮은 직종에 편중**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전체 취업자의 경우 단순노무 종사자 비중이 13% 수준인데 반해 실버 취업자의 경우 32%를 차지함에 따라 실버 취업자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낮은 편이다. **넷째, 실버 취업자들은 생애 주요 경력과 관련된 분야에서 계속 근무하는 비중이 높다.** 이는 60세 이상 고령으로서 새로운 업종이나 직업으로 전직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고 단순노무 및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실버 취업자가 60%를 넘는 특성과 연관이 있다. **마지막으로, 실버 취업자 중 장래에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비중이 2008년 83%에서 2011년 기준 87.4%로 증가**했다. 이들 실버 취업자가 장래에 일자리를 희망하는 이유 중 생활비에 보탬에 되기 위한 생계형 이유가 2011년 기준 53.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단순노무 종사의 60% 이상이 생활비 문제로 장래에도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5가지 실버 취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실버 취업자의 은퇴준비가 매우 미흡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 시사점

60세 이상 실버 취업자는 임금, 연금, 일자리 형태 등에서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고, 단순노무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근로기회를 잃어버리면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실버 취업자들은 연령대와 직종에 따라 일하는 목적과 임금 수준 등이 많은 차이를 나타냄에 따라 정부는 고령 취업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즐거움 및 사회봉사 측면으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고령층을 위해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여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사회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실버 취업자 가운데 취약계층에게는 직업 소개의 내실화와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실버 취업자의 특징 및 시사점 >

실버 취업자의 현황	
현황	- 1955~1963년 출생한 한국 베이비부머(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최근 본격화되면서 노후 대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고령 취업자도 급증세를 나타내 - 2007-2011년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 중 고령층 부가조사와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실버 취업자의 일자리를 질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실버 취업자의 특징 및 일자리 분석	
연금 수령	실버 취업자의 연금 수령자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 2011년 기준 30만원을 나타내 기초생활에도 부족한 상황이고 실버 취업자 취약계층은 전체 실버 취업자 중 20%를 차지함
임금	70-79세 실버 취업자의 임금 수준 2011년 57만원으로 60-69세 실버 취업자 13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실버 중에서도 70대 취업자의 임금이 더욱 열악함
근로형태 및 직업	실버 취업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규직의 2배 이상이고 단순노무 종사자 등 임금수준이 낮은 직종에 편중되어 있어 고령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낮음
일자리의 경력 연관성	고령 취업자들은 생애 주요 경력과 관련된 분야에서 계속 근무하는 비중이 높은데 이는 60세 이상 고령으로서 새로운 업종이나 직업으로 전직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고 단순노무 및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실버 취업자가 60%를 넘는 특성과 연관이 있음
장래 근로 계획	고령 취업자 중 장래에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비중이 2008년 83%에서 2011년 기준 87.4%로 증가, 이들 실버 취업자는 장래에 일자리를 희망하는 이유 중 생활비에 보탬에 되기 위한 생계형 이유가 2011년 기준 53.1%를 차지

시사점	
시사점	- 60세 이상 실버 취업자의 임금, 연금, 일자리 형태 등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고 실버 취업자들은 근로기회를 잃어버리면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 평균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고령 취업이 앞으로 더욱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 고령 취업자를 위한 직업 훈련 활성화 - 고령 취업자는 단순노무 종사자 비중이 높고 이에 따라 고용상태는 불안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들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사회 안전망 대책 필요

1. 실버 취업자의 개요

○ 1955~1963년 출생한 한국 베이비부머(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최근 본격화되면서 노후 대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고령 취업자도 급증세를 나타냄

- 2010년 기준 60세 이상 은퇴자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은퇴빈곤층(Retire Poor) 가구가 무려 101만5,000가구에 달해 고령으로 은퇴한 가구의 38.4%에 해당함[1)]
  · 은퇴빈곤층은 금융자산이 매우 빈약하고 그 중 개인적으로 준비한 노후자금이 미미하고 베이비부머 은퇴자들 중 상당수가 이 은퇴빈곤층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최근 고령화가 심화되고 준비되지 않은 은퇴자가 증가됨에 따라 실버 취업자가 증가

- 최근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50만 이상 증가해 1년 6개월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으나 50대 취업자 수가 30만 명 증가, 60대도 19만 명이나 늘어 취업자 수 증가는 50~60대 취업자 증가에 따른 것임

○ 따라서, 2008-2011년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 중 고령층 부가조사와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실버 취업자의 일자리를 질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

- 실버 취업자의 생활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취업자들이 종사하는 직종이나 현재 일하고 있는 일자리와 일생의 주된 경력과의 연관성을 살펴봄으로써 일자리의 질적인 평가를 함
  · 고령화 사회가 심화됨에 따라 고령 빈곤층 및 은퇴빈곤층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 통계청에서는 고령층을 55-79세로 정의하여 고령층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보고서에서는 연금수령[2)] 기준에 맞추어 60-79세를 실버 취업자로 정의하여 분석함
- 고용노동부에서는 준고령자를 50~55세,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정의함

1)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은퇴빈곤층의 추정과 5대 특성」
2)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면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 53~56년생까지는 만 61세부터, 57~60년생까지는 만 62세부터 수령 가능함. 출생 연도에 따라 수령 가능한 나이가 다르게 정해져 있음.

2. 실버 취업자의 현황

○ 실버 인구의 증가에 따라 고령취업자들이 최근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여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인 증가세

- 60~79세의 취업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기준 전체 취업자 중에 이들 실버가 차지하는 비중이 12.1%를 나타냄
  · 실버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11.5%에서 2011년 12.1%로 0.8%p 상승

< 취업자의 현황 및 추이 >

(단위 : 명, %)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15세 이상	인구 수	39,136,844	39,540,124	40,027,172	40,532,784	41,002,804
	취업자 수	23,757,902	23,938,974	23,720,232	24,305,914	24,660,916
실버	인구 수	6,123,955	6,317,862	6,475,329	6,669,648	6,931,113
	60-69세 취업자	2,001,028	1,984,999	1,959,710	2,051,121	2,131,059
	70-79세 취업자	722,439	722,563	746,391	810,724	841,720
전체취업자 중 실버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11.5	11.3	11.4	11.8	12.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주 : 고령층 부가조사가 5월에 실시됨에 따라 같은 시가의 비교를 위해 전체 15세 이상 취업자수도 매해 5월 데이터를 사용함

- 실버 중에서도 60-69세, 70-79세의 고용률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남
  · 2011년 기준 60-69세의 실버 고용률은 51.1%를 나타내고 70-79세의 경우 30.5%를 나타냄

< 고용률[3] 현황 및 추이 >

(단위 : %)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고용률		60.7	60.5	59.3	60.0	60.1
실버	고용률 (60-79세)	44.5	42.9	41.8	42.9	42.9
	60-69세 고용률	52.2	50.6	49.4	50.7	51.1
	70-79세 고용률	31.5	30.2	29.8	30.9	30.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주 : 1) 실버 고용율은 고령층 부가조사를 활용하여 60세-79세의 샘플을 활용하여 산출 (실버 고용률=100*실버취업자/고령층전체인구)
2) 고령층 부가조사가 5월에 실시됨에 따라 같은 시가의 비교를 위해 전체 고용률은 매해 5월 데이터를 사용함

3)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나타냄 (2010년 기준 :한국 28.7%, 미국 16.2%, 일본 21.3%, 영국 8.4%, OECD 평균 12.3%)

3. 실버 취업자 특징 및 일자리 분석

○ **(실버 취약 계층 20%)** 실버 취업자 가운데 연금 수령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거나 전혀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실버 취약 계층은 실버 취업자 중 20%를 차지

- 실버 취업자 가운데 취약계층의 비중은 20%를 차지함
  · 고령 취업자 중에서 10만원 이하 연금을 받거나 전혀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중이 20%를 차지하여 이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빈곤층으로 빠질 우려가 있음

< 실버 취업자 중 취약계층 현황 및 추이 >

(단위 : 명, %)

		2008	2009	2010	2011
10만원 이하 연금을 받으면서 단순노무직에 종사		97,879	227,752	278,856	272,232
연금수령을 못하면서 단순노무직에 종사		469,101	323,340	347,970	321,185
합 계		566,980	551,091	626,825	593,416
실버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중		20.9	20.4	21.9	2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 **(연금수령 현황)** 실버 취업자 가운데 연금 수령자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60세 이상 실버 취업자 중에서 연금 수령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연금 혜택을 받는 인구 증가
  · 실버 취업자 중에서 연금을 받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40.4%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64.7%를 나타냄

< 실버 취업자 중 연금수령 현황 및 추이 >

(단위 : %)

	2008	2009	2010	2011
수령자	40.4	59.1	61.8	64.7
비수령자	59.6	40.9	38.2	35.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주 : 1) 연금은 개인연금,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기초노령연금 등을 포함함.

2)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08년 처음 시행되었는데 첫해에는 수령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더 제한적이었고 또한 고령층이 첫해에는 이 제도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 신청률도 지금보다 저조해 2008년에는 수령자 비중이 낮았음. 하지만 2009년에는 수령자가 되기 위한 조건도 완화되고 이 제도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져 신청자도 증가하여 2009년 수령자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판단됨.

3) 연금에 대한 조사는 2008년부터 고령층 부가조사에 포함되어 2007년 자료는 존재하지 않음.

- 월평균 연금 수령액을 살펴보면,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연금 수령자 비중은 증가세를 나타낸데 반해 연금 수령액은 30만 원대에 정체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기초 생활에도 부족한 상황
  ·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2011년 기준 30만원을 나타내 여전히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3만원(2010년 기준)에 미달하고 있어 연금 수령액으로는 기초 생활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

< 연금받는 실버취업자의 연금수령액 현황 및 추이 >

(단위 : 만원)

	2008	2009	2010	2011
월평균 수령액	30.3	26.3	27.8	30.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주 : 연금은 개인연금,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기초노령연금 등을 포함함.

○ **(임금 수준)** 70-79세 실버 취업자의 임금 수준은 60-69세 실버 취업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실버 중에서도 70대 취업자의 임금이 더욱 열악하게 나타남

- 실버 취업자 중 60-69세와 70-79세의 임금 수준의 차이가 더욱 확대되며 특히 70-79세 실버 취업자의 임금 수준 악화가 심각함
  · 60-69세의 실버 취업자의 임금 수준은 증가세를 나타내는 반면 70-79세는 감소세를 나타냄

< 실버 취업자의 임금 현황 및 추이 >

(단위 : 만 원)

월 평균 명목 임금	2007	2008	2009	2010	2011
60-69세	107	108	111	121	130
70-79세	66	65	61	59	5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주 : 1) 고령층 부가조사에서는 임금에 대한 정보가 없어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사용함.
2) 근로형태별 부가조사(3월 조사)는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만 조사가 이루어짐
2) 전체 근로자의 임금은 2007년 173만원, 2008년 181만원, 2009년 185만원, 2010년 195만원, 2011년 202만원을 나타냄

- 60-69세 실버 취업자의 월 평균 실질 임금 증가율은 금융위기 직후 마이너스에서 최근 플러스로 전환되었으나 70-79세 실버는 지속적으로 감소세
  · 60-69세 실버 취업자의 월 평균 실질 임금 증가율은 2011년 기준 2.6%이었으나 70-79세 실버 취업자는 -7.7%를 기록함

· 70-79세의 실버 취업자는 2008년 이후 명목과 실질 임금 모두 마이너스를 나타냄

< 실질임금[4] 증감률 추이 >

(%)

		2008	2009	2010	2011
실질 임금	60-69세	-2.9	-1.1	6.5	2.6
	70-79세	-5.2	-9.7	-5.5	-7.7
명목 임금	60-69세	0.9	2.8	9.0	7.4
	70-79세	-1.5	-6.2	-3.3	-3.4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경제활동인구조사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주 : 실질임금=100*(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

○ **(근로형태 및 직업별 분포)** 실버 취업자의 비정규직 비중은 최근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단순 노무 종사자 등 임금수준이 낮은 직종에 편중되어 있어 실버 취업자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낮음

- 실버 취업자의 근로형태를 보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2배를 넘음
  · 실버 취업자 중 60-69세의 비정규직 비중은 2011년 기준 66.6%, 70-79세의 비정규직 비중은 77.3%를 나타내 실버 취업자의 고용 안정성이 매우 열악함
  · 전체 근로자의 경우 비정규직 비중은 2011년 기준 33% 수준인데 실버 취업자는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나타냄

< 실버 취업자의 근로형태별 추이 >

(단위 : %)

		2007	2008	2009	2010	2011
정규직	60-69세	32.8	34.2	35.6	34.3	33.4
	70-79세	25.7	26.5	23.3	19.4	22.7
비정규직	60-69세	67.2	65.8	64.4	65.7	66.6
	70-79세	74.3	73.5	76.7	80.6	77.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주 : 1) 고령층 부가조사에서는 임금에 대한 정보가 없어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사용함.
2) 근로형태별 부가조사(3월 조사)는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만 조사가 이루어짐
3) 통계청의 정규직 비정규직 정의를 이용하여 분류함.
4) 전체 근로자의 정규직 비중은 2007년 66%, 2008년 67%, 2009년 68%, 2010년 68%, 2011년 67%를 각각 나타냄

4) 실질임금이란 물가상승 효과를 제거한 실질적인 임금을 나타내고 이는 실질적인 구매력을 나타낸 임금을 의미함

- 실버 취업자의 직업을 분류해 보면, 단순노무 종사자와 농림어업 종사자 비중이 60%를 넘어 임금수준이 낮은 직종에 편중되어 있음
  · 취업자 중 단순 노무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에서 2008년 소폭 감소했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31.5%를 기록함에 따라 최근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의 일자리의 질적인 수준도 악화되고 있음
  · 전체 취업자 중 단순 노무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3% 수준인데 반해 고령층 취업자의 경우에는 30%가 넘어 고령 취업자이 평균적으로 양질에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비중이 낮음

< 실버 취업자의 직업별 현황 >

(단위 : %)

	2007	2008	2009	2010	2011
전문직	5.7	6.7	6.3	6.4	7.3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9.4	19.1	18.5	17.1	17.6
기능직	10.2	11.0	11.6	13.3	14.2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35.6	35.1	33.3	30.3	29.4
단순 노무 종사자	29.1	28.1	30.2	32.9	31.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주 : 1) 전문직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포함, 기능직은 기능원 및 관련기증 종사자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를 포함.

2) 단순 노무 종사자는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원 및 기타 단순노무직에 속하는 자를 포함

3) 2010년 기준 각 직종에 종사하는 전체 취업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9.2%, 사무 종사자 15.7%, 서비스 종사자 10.2%, 판매 종사자 12.3%,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1.3%, 단순노무 종사자 13.5%로 이들 직종에 많이 취업되어 있음

○ **(일자리의 경력 연관성)** 실버 취업자들은 생애 주요 경력과 관련된 분야에서 계속 근무하는 비중이 높은데 이는 60세 이상 고령으로서 새로운 업종이나 직업으로 전직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고 단순노무 및 농립어업에 종사하는 실버 취업자가 60%를 넘는 특성과 연관이 있음

- 실버 취업자들은 생애 주요 경력과 관련된 분야에서 계속 근무하는 비중이 70%를 차지함
  · 이는 60세 이상 고령으로서 새로운 업종이나 직업으로 전직하기 어려운 상황을 나타내고 단순노무 및 농립어업에 종사하는 실버 취업자가 60%를 넘는 특성과 연관이 있음

< 취업 일자리와 생애 주된 경력과의 관련성 여부 >

(단위 : %)

최근 일자리와 경력과 관련성 정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전혀 관련이 없음	16.0	16.3	17.8	19.5	20.1
별로 관련이 없음	10.2	10.2	9.8	10.6	9.7
약간 관련이 있음	8.1	8.2	8.1	8.8	8.5
매우 관련 있음	65.7	65.3	64.3	61.0	61.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주 : 60세 이상 취업자만 대상으로 구성 비중을 산출함

- 실버 취업자의 지난 1년간 취업 경험 횟수가 1회인 경우가 84%를 나타냄
  · 지난 1년간 취업 경험 횟수가 1회인 취업자의 비중은 2008년 87.7%에서 2011년 84%로 감소하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근로 조건이 열악해도 취업 기회나 취업 여건이 제약되어 이직을 꺼리는 현실을 반영함

< 지난 1년간 취업 경험 >

(단위 : %)

취업 경험 횟수	2007	2008	2009	2010	2011
한 번	86.2	87.7	87.2	84.2	84.0
두 번	7.8	7.3	7.3	10.6	10.3
세 번 이상	6.0	5.0	5.6	5.1	5.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주 : 60세 이상 취업자만 대상으로 구성 비중을 산출하였고 지난 1년간 취업 경험은 현재 직장 및 일자리를 포함함

○ **(장래 근로 계획)** 실버 취업자의 대부분이 장래 근로를 희망하고 희망하는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한 이유가 장래에 일하고 싶어 하는 이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고령 취업자 중 반 이상은 은퇴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60세 이상의 고령 취업자 중 장래에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비중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함
  · 60세 이상의 고령 취업자 중 장래에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비중이 2008년 83%에서 2011년 기준 87.4%로 증가함

< 취업자의 장래 근로 희망 여부 >

(단위 : %)

	2007	2008	2009	2010	2011
장래근로 원함	84.3	83.0	84.2	87.6	87.4
장래근로 원하지 않음	15.7	17.0	15.8	12.4	12.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주 : 60세 이상 비취업자만 대상으로 구성 비중을 산출하면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 비중은 2011년 기준 22.1%, 근로를 희망하지 않는 사람 비중은 77.9%를 나타내 실버취업자와는 매우 다른 형태를 보임

- 장래 근로를 원하는 고령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장래 일자리를 원하는 주된 이유를 살펴보니,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한 생계형 이유로 취업을 희망하는 실버 취업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실버 취업자는 장래에 일자리를 희망하는 이유 중 생활비에 보탬에 되기 위한 생계형 이유가 2011년 기준 53.1%를 차지함
  - 또한, 일하는 즐거움의 이유를 답한 실버 취업자의 비중은 2011년 38.6%를 차지하며 생활비 보탬 이유 뿐 만 아니라 일하는 즐거움도 장래 일자리를 원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 취업자의 장래 근로 희망 이유 >

(단위 : %)

	2007	2008	2009	2010	2011
일하는 즐거움	35.9	36.6	36.0	35.9	38.6
생활비에 보탬	55.7	54.6	55.8	55.9	53.1
사회가 필요로 함	1.5	1.4	1.5	1.7	1.7
건강유지	2.7	2.7	2.2	2.2	2.4
무료해서	4.0	4.6	4.5	4.1	3.9
기 타	0.2	0.1	0.1	0.3	0.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주 :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 취업자들만을 대상으로 비중을 산출함

- 장래 근로를 원하는 실버 취업자들을 직종별로 나누어 장래 일자리를 원하는 주된 이유를 살펴보니, 직업별에 따라 일하는 이유가 큰 차이를 보이며 단순노무 종사자의 60%이상이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전문직 종사자는 일하는 즐거움이 56%를 차지하고 생활비 보탬이 15%를 나타냄

< 실버 취업자의 직업별 근로 희망 이유 >

(단위 : %)

		2007	2008	2009	2010	2011
전문직	일하는 즐거움	55.0	56.7	59.1	52.5	56.4
	생활비에 보탬	23.1	20.0	21.2	21.4	15.3
단순 노무 종사자	일하는 즐거움	24.2	23.0	22.2	22.3	25.0
	생활비에 보탬	61.4	60.6	61.3	65.1	60.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주 :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 중 위의 두 가지 이유 외에 사회가 필요로 함, 건강유지, 무료해서, 기타 등이 있음

4. 시사점

○ 60세 이상 실버 취업자의 임금, 연금, 일자리 형태 등에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실버 취업자 중 특히 취약계층은 근로기회를 잃어버리면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 실버 취업자들은 연령대와 직종에 따라 일하는 목적과 임금 수준 등이 많이 차이를 나타냄에 따라 정부는 고령 취업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사회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차별적 정책 마련이 필요함
  - 돈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일하는 즐거움 및 사회봉사 측면으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고령층을 위해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여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사회봉사 참여 기회를 확대
  - 실버 취업자 취약계층에이 일자리를 상실할 경우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만큼 직업 소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선진국의 중고령층 고용 정책을 한국의 실정과 상황에 맞게 응용하여 한국형 선진 고용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 효율성 제고
  - 영국의 중고령층 고용네트워크(The Age and Employment Network: TAEN)는 중고령층의 구직, 경력개발, 훈련, 진로모색 등을 돕는 독립적인 기구로 특화되어 있음

· 미국, 일본, 덴마크 등 선진국에서는 중고령층을 위한 특화된 재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고령취업자들을 위한 직무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과 복지프로그램을 일원화하여 고용정책 효율성 제고
· 고령자 직업훈련과 취업알선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취업 원스톱서비스 제공

- 평균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고령층의 생계형 취업이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령 취업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필요
· 실버 취업자 중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사회안정망 확대 필요
· 실버 취업자를 위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고 고령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김민정 연구위원 (kimmj@hri.co.kr, 02-2072-6212)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9년					2010					2011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E)
미국	-2.6	-4.9	-0.7	1.6	5.0	2.9	3.7	1.7	2.6	3.2	1.5
유로 지역	-4.1	-2.5	-0.1	0.4	0.2	1.8	0.4	1.0	0.4	0.3	1.6
일본	-6.3	-20.1	10.8	-1.9	7.3	3.9	6.0	2.1	3.3	-1.1	-0.5
중국	8.7	6.2	7.9	9.1	10.7	10.3	11.9	11.1	10.6	9.8	9.5
한국	0.2	-4.3	-2.2	1.0	6.0	6.2	8.5	7.5	4.4	4.7	4.2

주: 1) 2011년 전망치(E)는 IMF 2011년 9월 기준이고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6월말	12월말	12월16일	12월22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83	3.89	3.30	1.86	1.95	0.09%p
	엔/달러	92.93	88.43	81.19	77.88	78.07	0.19￥
	달러/유로	1.4413	1.2238	1.3350	1.3022	1.3044	0.0022$
	다우존스지수(p)	10,428	9,774	11,578	11,866	12,170	304p
	닛케이지수(p)	10,655	9,383	10,229	8,402	8,395	-7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4.41	3.86	3.38	3.33	3.36	0.03%p
	원/달러(원)	1,164.5	1,222.2	1,134.8	1,158.6	1,156.2	-2.4원
	코스피지수(p)	1,682.8	1,698.6	2,051.0	1,840.0	1,847.5	7.5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6월말	12월말	12월16일	12월22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79.35	75.77	91.40	93.77	99.42	5.65$
	Dubai	78.06	73.14	88.80	101.98	105.27	3.29$
CRB선물지수		283.38	258.52	332.80	295.00	305.67	10.67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